

# 칸의 여왕 전도연, 굿 와이프 될까

11년 만에 브라운관 컴백

첫 변호사役 도전 '기대'

국내 첫 미드 리메이크작

tvN '굿 와이프' 내일 첫 방영



원작의 인기는 집이 될까 담이 될까.

tvN이 미국 CBS 방송의 '굿 와이프'로 한국 방송사 최초로 미국 드라마 리메이크에 도전한다. '굿 와이프'는 흡입력 있는 스토리와 높은 완성도로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2009년 방송을 시작해 일곱 시즌을 이어갔고 지난 5월에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중영의 아쉬움을 채 달래지 못한 시청자들에게 원작보다 좋은 인상을 남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전도연, 유지태를 필두로 이어지는 화려한 캐스팅과 별개로 미국의 정치·법조계를 심도 있게 그린 원작 드라마를 얼마나 맛있게 '한국화'했는지가 변수다.

제작진이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만들었다는 tvN표 '굿 와이프'는 미국의 '굿 와이프'와 얼마나 다르고 또 얼마나 닮았을까.

◇'경단녀'에 한국과 미국 모두 공감대 = '굿 와이프'는 정치적 야망을 품은 검사의 아내 엘리사 플로릭이 정치 스캔들로 수감된 남편 대신 가정을 꾸리기 위해 사회로 나서는 이야기다. 10년 넘게 가정을 돌보던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그간 써먹을 일이 없었던 변호사 자격증을 꺼내 든다.

등 떠밀리듯 시작한 변호사 일이지만 누군가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이던 엘리사는 일을 하면서 다시 온전한 한 명의 인간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된다.

'워킹맘', '경단녀(경력단절여성)' 같은 단어들에 보여주듯 여성의 사회 활동이 사회적 이슈가 된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메시지를 담은 드라마다.

11년 만에 TV에 복귀하는 '칸의 여왕' 전도연이 원작의 엘리사 플로릭, 김혜경 역을 맡았다.

김혜경은 엘리사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인연 덕분에 법무법인에서 일하게 되고 세상의 편견과 맞서며 한참이나 어린 인턴 변호사와 경쟁하게 된다.

엘리사 플로릭 역을 맡은 줄리아나 마굴리스는 평범한 주부에서 거친 세상과 맞서는 변호사로 성장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차분하면서도 강단 있게 연기했다.

특히 이지적이면서도 세시함을 잃지 않는 성인 여성의 모습으로 많은 시청자에 호평을 받았고 골든글로브와 에미상에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기도 했다.

최근 영화 '무뢰한', '남괴여' 등을 통해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했던 전도연이 이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엘리사가 대학원 동기인 월 가드너의 도움을 받았다면, 한국판에서는 대학 후배이자 연수원 동기인 서정원(윤계상 분)이 손을 내민다.

원작에서는 월이 경력도 더 많은 다이앤 록하트와 동업하면서 겪는 갈등이나 다이앤의 로맨스에도 많은 시간이 할애됐지만, 한국판에선 서정원의 동업자가 그의 누나인 서명희(김서형)로 설정되면서 캐릭터가 조금은 단순해졌다.

가족 이야기가 좋아하는 한국 시청자의 취향을 반영한 변화다.

연출을 맡은 이정호 PD는 최근 제작발표회에서 "원작의 캐릭터를 많이 참고했지만, 현장에서 배우들의 느낌이나 해석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언급해 캐릭터의 변화를 예고했다.

◇156화→16회 압축...깊이감 살릴까=CBS의 '굿 와이프'는 7개 시즌에 걸쳐 무려 156개 에피소드를 방송했다.

스캔들을 행하며 남편 옆에 인형처럼 서 있던 엘리사가 초보 변호사로, 법무법인 파트너로, 주지사 후보로 성장하는 모습을 긴 호흡으로 다룬다.

남편 피터의 주지사 선거·대통령 선거 캠페인 모습까지 다루면서 주변 인물까지 매우 입체적으로 그린 것이 이 드라마의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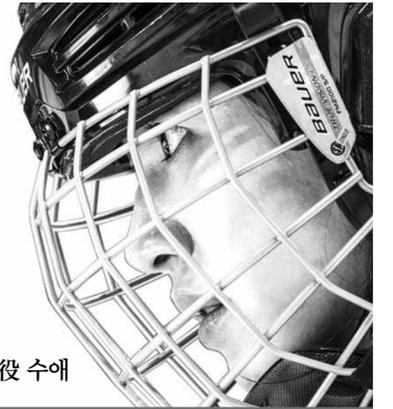
그에 반해 tvN의 '굿 와이프'는 16부작이다. 이정호 PD는 "원작에는 매력적인 캐릭터가 굉장히 많지만 16개의 한정된 에피소드로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김혜경과 남편 이태준(유지태 분), 서정원, 서명희, 조사원 김단(나나), 혜경과 경쟁하는 이준호(이원근) 등 6명 정도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꾸렸다"고 소개했다.

tvN과 리메이크 작업을 함께한 미국 CBS 컨설턴트 제럴드 사노프는 "미국 원작의 스토리 구조를 충실히 유지하면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매력적인 한국 캐릭터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매우 특별하다"고 리메이크 작업을 평가하기도 했다.

tvN판 '굿 와이프'는 원작의 에피소드를 그대로 살리거나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원작의 깊이감을 살린다는 계획이다. 8일 오후 8시30분 첫 방송. /연향뉴스

# "전작과는 다른 느낌 보여드려요"



영화 '국가대표 2' 지원 役 수에

"전작('국가대표')과는 다른 느낌과 색깔을 보여줄 겁니다."

스키점프 국가대표팀의 일화를 그린 '국가대표 2'(2009)에 이어 한국 최초의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의 이야기를 다룬 '국가대표 2'에 출연하는 수에는 6일 서울 중구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열린 '국가대표2' 제작발표회에서 영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영화에서 팀 내 유일한 정통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 '지원' 역을 연기한 수에는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강한 느낌이 왔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나도 전작을 재밌게 봤지만, 전작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다"고 말했다.

소프트트랙에서 방출돼 아이스하키팀에 합류한 '재경' 역의 오연서는 국내에는 흔치 않은 여성영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대표2'가 여성영화라는 점이 좋았다"고 출연을 결심한 이유를 밝히며 "여성 선수들, 여성들의 드라마가 있는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함께 전했다.

'국가대표2'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이 우여곡절 끝에 급조돼 2003년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에 출전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뤘다.

2009년 역대 스포츠 영화 사상 가장 많은 84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국가대표'의 후속작이다.

배우들은 아이스하키 선수를 실감나게 연기하기 위해 촬영 전 3개월 동안 사전연습을 했다.

수에는 "아이스하키를 해보는 것이 처음이라 복잡 작용부터 쉽지 않았다"며 "그래도 김

종현 감독과 촬영감독 등 일부 스태프가 시간 날 때마다 함께해줘 든든했다"고 말했다.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스케이트를 타겠다는 오연서는 "초반에 예를 많이 먹었지만 끝날 때에는 잘 타게 됐다"며 "지금도 가끔 스케이트를 타고 싶을 때가 있다"고 웃었다.

강도 높은 훈련과 경기 중 거친 몸싸움 탓에 부상도 잦았다.

전업주부로 있다가 팀에 합류한 '영자' 역의 하재숙은 무릎 연골이 파열됐고, 시집을 잘 가기 위해 국가대표가 되려고 하는 자칭 전직 피겨요정 '가연' 역의 김예원은 어깨가 탈골됐다.

하재숙은 "무릎연골 파열로 수술까지 했지만, 다 같이하는 도전이라 즐겁게 했다"며 "다들 하나같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버텼다"고 떠올렸다.

김예원은 "어색하기 보이기 싫어서 열심히 훈련에 임했는데 그러다가 공중으로 날아서 떨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당했다"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영광의 상처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국가대표 감독 '대웅' 역의 '정일점' 오달수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다.

여배우들과의 수다가 감당하기가 힘들었다는 것. 그는 "밤새 수다를 떠다 보니 지치더라"며 "그래도 나를 '언니'처럼 대대려서 불편함은 전혀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김종현 감독은 "'국가대표2'는 '우생선'이나 '국가대표'와는 완전히 다른 우리만의 매력이 있다"면서 "'국가대표2'만의 힘 있으면서도 색다른 영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화는 오는 8월 개봉한다. /연향뉴스

## TV 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욱정 PD의 자연 담은 한기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소셜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	00 수목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재)	00 창사 55주년 특별기획 <육중화>(재)	00 닥터 365 05 토크쇼서드 화통(재)
12	00 KBS 뉴스 12	0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재)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드라마 <가화만사상>(재)	00 SBS 12 뉴스 50 닥터365 55 남도의 보물 100선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웍스특선 <보물섬> 55 감성애니 하루 (재)			20 kbc자연재해예방특집 <자연재해 이렇게 대비합시다> 55 TV블로그 토크라
2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스페셜	00 세상발견 유레카 55 닥터365
3	00 생로병사의 비밀 (재) 55 튜닝생활제초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싸이월드(재) 55 파워배틀 와치카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55 감성애니 하루(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안녕! 괴발개발 30 터닝카드 W	00 MBC 이브닝뉴스	00 꼬마해녀 뽀니와 해너특공대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으리다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토크라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일일연속극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KBS 스페셜 55 감성애니 하루	00 수목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00 수목미니시리즈 <운빨로맨스>	00 드라마 스페셜 <원티드>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그애 행복이 산다>	10 해피 투게더	10 희망말레이 토크쇼서드 청춘진담	10 자기야-백년손님
12	30 넷워킹 문화특선 울댓유적(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한민족의 소리 스페셜 30 MBC 뉴스 24 50 메이저리그다이아리	30 나이타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오산진의 베트남 피싱로드>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전진주의 뿌리채소 소고기편과 찜의 결절이> 11:20 세계테마기행 (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통일의 길 12:40 역사채널E 07:45 뽀뽀뽀 뽀로로 08:00 뽀뽀뽀 유치원 1~3 08:45 방귀대장 뽀뽀이 09:00 골디와 친구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달라졌어요 10:30 한국기행(재)
15:20 꼬마 철학자 휴고 15:35 호기심나라 오키도 <대륙의 뜨거운 심장-후배이성 4부 천하장사의 산수화, 은사대첩> 16:00 골디와 친구들(재)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16:45 뽀뽀뽀 유치원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뽀뽀뽀 뽀로로(재) 18:00 생방송 토크! 뽀니하니1~4 19:00 레전드이어러 삼국전 19:30 EBS 뉴스 <한국에 산다> 19:5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산다 <나의 가족 미디어중독 탈출기> 20:40 다큐오늘	<백주부도 반한 꼬치요리> 20:50 세계테마기행 <대륙의 뜨거운 심장-후배이성 4부 천하장사의 산수화, 은사대첩> 21:30 한국기행 <그해, 오지의 여름 4부 꿈꾸는 농부>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엄마밥> 22:45 다문화 고부영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24:05 역사채널 8(재)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4일 (음 8월 11일 庚寅)	
<b>子</b>	48년생 단편적이거나 임시적인 것은 판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60년생 한 번만으로는 불안전하므로 여러 번 신경 써야 하는 수고로움이 보인다. 72년생 별 의미가 없다. 84년생 명쾌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행운의 숫자 : 40, 18	<b>午</b>	42년생 평상시에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54년생 부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전체를 파악 하자. 66년생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다. 78년생 사경과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이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72, 38
<b>丑</b>	49년생 우중의 미가 중하니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할 것이다. 61년생 연유는 근원을 알게 되리라. 73년생 전환되면서 상당한 수치를 부른다. 85년생 우려하여 왔던 바는 아니니 부담감을 떨쳐버려도 된다. 행운의 숫자 : 96, 99	<b>未</b>	43년생 기존의 상식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게 되리라. 55년생 특수한 요령에 따르지 않으면 험난해 질 것이다. 67년생 가 벼은 조자가 무방하다. 79년생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해결이 가능하다. 행운의 숫자 : 03, 21
<b>寅</b>	50년생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니라. 62년생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할 때가 되었다. 74년생 말 못할 속사정이 있어서 답답할 뿐이다. 86년생 절대적으로 믿어 왔던 것에 의심이 가기 시작하리라. 행운의 숫자 : 11, 22	<b>申</b>	44년생 주관이 강하면 편견에 사로잡히기 쉬우니 타자의 조율과 의견 개진이 필요한 단계이다. 56년생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68년생 방향과 방법의 선택이 감흥을 좌우하리라. 80년생 무자식이 상팔자다. 행운의 숫자 : 93, 89
<b>卯</b>	51년생 반복적인 동세의 연속이므로 새로운 것이 없다. 63년생 규모를 따지기 이전에 발생 자체에 의미가 있게 되리라. 75년생 생 완전히 펼쳐버리지 않는다면 골치거리로 남는다. 87년생 뜻이 있다면 주장해야 해결된다. 행운의 숫자 : 19, 67	<b>酉</b>	45년생 생각보다는 상당한 차이가 나리라. 57년생 돌발적인 변수가 보이니 기민하게 대처해야겠다. 69년생 귀결점은 동일할 것이니 마음 쓸 필요는 없다. 81년생 대다수의 목표를 성취하게 되는 길잡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6, 71
<b>辰</b>	40년생 옛 것으로부터 행운이 따를 수다. 52년생 무자식이 상팔자다. 64년생 일지하지는 않겠지만 근사치에 이르리라. 76년생 특별한 의미가 있다. 88년생 처음에는 잊혔다가 나중에 합의 점에 이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6, 57	<b>戌</b>	46년생 실속없는 것과 관련된다면 관련해진다. 58년생 양호한 기반이 원만한 전개를 담보한다. 70년생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라. 82년생 변경하거나 추가하려 하지 말고 기만히 놓아두는 것이 최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73, 14
<b>巳</b>	41년생 배우가 드러날 수도 있다. 53년생 주체적 관여가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 65년생 소강상태를 벗어났다. 77년생 소모적이라면 과감하게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9년생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9, 90	<b>亥</b>	47년생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다. 59년생 난한 현대 앞에서 초연해질 필요가 있다. 71년생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이뤄져야 확실한 효과를 보느니라. 83년생 총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6, 85